자기 마음속의 자부처 안에서 일체 만법이 나고 든다

☞ 21면에서 계속

을 보고 "엄마!"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만나면 "형님!"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이 만나면 "형수!" 그랬다가 어떤 사람이 만나면 "여보!" 그랬다가 아니,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여러 이름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나가서 노동을 하면 노동꾼이 되고 사무실에 가서 행정을 보면 바로 사무원입니다. 과장으로 승진이 되면 과장님이에요. 계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총무고 이사고 또 사장이고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과장으로 앉았을 때 다르고 회장으로 앉았을 때 다르고 또 총무로 앉았을 때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리가. 모습도 달라져요, 행이 다르니까. 남이 부르는 것도 그렇고 행도 그렇고 다 달라지죠.

이렇게 달라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말을 잘 들으시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자부처가 들어 계시니 그 자부처 안에서 일체 만법이 나고 든다' 하는 이 도리를 아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남한테 속지 않을 거고 생활해 나가는 데에 조금도 걸림이 없을 거고, 앉아서 미지의 세계에 전부 행을 할 거고, 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보이는 세상에서는 다양하게 걸리지 않고 행을 움죽거릴 수 있고요. 그러니 "야, 이 산천초목 천지만물 중에 모두가 만 가지 꽃이 되며, 만 가지 향이 되며, 만 가지 법이 되니 어찌 부처님 아닌 게 있으랴?" 나도 빼놓지 않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말이에요. 나 빼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빼놓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빠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같은 한자리에 그 만 가지 꽃과 만 가지 향을 만 가지 법으로 조화를 이루고….

요새 아시안 게임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속수무책으로…, 안 보면 모르지만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닥칠 때는, 야,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는 군인의 경험 있는 의식을 거기다가 해 줘야 힘이 나죠. 만약에 아무 경험도 없는 의식을 그 의식에다 붙여 주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괜히 힘만 나지 요량이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할 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보이는 걸로 해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테니까 그럽니다. 나 나무라지 마세요. 허허허.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명하다 할 땐, 아주 그, 잘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요기에다 힘을 같이 포함해 주는 그런 요량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응용하실 수 있는 그 한마디만 들으면 만법의 응용을 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일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겨서 찬을 만들어야 할 텐데 찬은 하나도 모르고 쓰레질만 잘하는 사람 갖다가 놓으면 찬은 어떡합니까? 또 바느질을 해야 될 텐데 찬을 잘하기만 하고 바느질을 못해. 그런 사람을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걸 요량 있게, 이것이 걸림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이치가 아주 법이 돼서, 스스로 법이 돼서 그냥 무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주 묘법으로 돌아가야만 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서 지금 무심으로 저렇게, 문지방을 넘어서야겠다 하는 생각 없이 넘어서고, 똥을 눠야겠다 하는 생각 없이 똥 마려우면 그냥 뛰어가서 누고 그러듯이, 또 그게 만약에 금이 아니라면, 걸레라면 그냥 이렇게 아무 데나 빨아서 던져 놓죠, 그릇에 담아 놓든지. 그래도 그것을 누가 집어 가려니 생각조차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무심으로 갖다 놓습니다. 금도 그렇게 무심으로 갖다 놓을 수 있으리만큼 돼야 됩니다. 그게 하상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잠깐 캠핑 와서 놀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놀다 가는 길에 그저 당장 쓸 거, 당장 먹을 거 요것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그거 먹고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 맘 먹는 사람은. 그런데 더 깽겨 놓으려고 짊어지고 다니니까 무거워서 끽소리 못하고 어떤 땐 이 어깨가 축 늘어지고, 부산을 향해야 할 텐데 짐이 무거워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찌부러져 죽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가다 말고 그것도 다 못 가져가곤 그냥 죽거든요. 그런 분들이 허다히 많거든요. 세상에, 아니, 100원 짊어지고 가려고 벌다가 단 50원도 못 벌고 그냥 죽어 버리거든요. 그 왜 그럽니까? 이 세상 게 전부 여러분 건데 왜 일부러 짊어지고 다녀요? 쓸 때나 쓰면 됐지. 열쇠 하나만 가지면 됐고. 아이 참 내!

내가 만약에 책을 보고 여러분한테 요렇게 얘길 해 준다면 난 쓸모없는 인간, 죽어야 마땅하지. 정말입니다. 난 더 살고 싶지도 않고 또 이렇게 죽고 싶지도 않고, 아예 그냥 편안해요. 그렇다 해서 잘난 것은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울면 나도 울고, 여러분이 쓰라리면 나도 쓰라리고, 여러분이 쾌활하게 웃으면 나도 웃고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고 똑같지 않으면 부처 될 수도 없죠.

예전에 말입니다, 내가 그때는 스무 살 먹기 전이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디를 걷다가, 그때도 한참 공부라는 거 없이, 모르고 그냥 할 땝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더러 하는 소리가 "얘야! 어느 부부가 살았는데 배고픈 사람이라는 거는 전부 데려다가 집으로 끌고 들어왔단다, 남편이." "그래서요?" "근데 아내는 말이야, 밥을 해다 놓고 이게 뭐냐고 해서 밥이라 하면 절굿공이 가지고 들어와서 때려서 내쫓고 남편은 자꾸 데려오고, 부인은 그게 뭐냐고 그래서 밥이라고 그러면 그냥 때려 내쫓고….

그 소문이 그냥 파다하게 났거든. 파다하게나 가지고 밥이라고 하면 밥도 안 주고 때려 내쫓는다는 소문이 나서 밥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또. 아니라고 해도 절굿공일 가지고 들어와서 확 그냥, 막 때려서 내쫓았거든. 그러니 그때 네가 만약에 그 밥을 먹으러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날더러. 그때 나는 그게 무슨 나발 같은 소린가 했거든요. 하하하…. 지나온 게 지나온 게 아니라 생생한 오늘입니다.

이 이야길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관하고 있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그 관하던 걸 다 잊어버렸죠? 저녁에 가서 '아이고, 하루 종일 놓쳤구나.' 허허, 이러시질 마세요. '하루 종일 놓쳤구나.' 하지 마시고 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벌써 열두 시간이 지났으면 열두 시간이 바로 자기가 생각난 그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한 찰나가 24시간도 될 수 있고, 한 찰나가, 생각나는 그 한 찰나, 관할 수 있는 그 한 찰나가 며칠도 될 수 있고 천 년도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물며 내가 놓쳤다고 한탄을 해요? 그런다면 걸려. 벌써 24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미지의 세계와 지금 현실 세계와 둘이 아니게 회전이 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회전을 못 하고 자꾸 걸려서, 이거는 공부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미신의 행위를 하거나 그 도리를 모른다면 우리가 죽어서도 잠재해 있는 그 차원에 따라서 또다시 이 고통을 면칠 못해.

그래 인제, 뭐냐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나발 같은 소린가 하고선 아무 소리 않고선 아주 묵언을 했습니다. 그러곤 있다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개천을 건너가는데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조그만 돌맹이에 딱 발끝이 차여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니까 내가 물에 그냥 탁 엎드러졌단 말입니다. 엎드러지면서 이 머리가 그냥 그리로 닿으면서 깨졌는데, 물이 그냥 이쪽저쪽으로 좀 많이 튀겨졌겠습니까?

그거를 보고서 '아하! 이 크고 작은 방울이 다, 밥이라고 해도 아니 되고 밥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 되는 그런 이치, 말을 해도 아니 되고 안 해도 아니 되는 이치로구나. 내가 엎드러졌으면 그냥 엎드러졌지, 그냥 무심코 저기 뛰어넘어 왔으면 될 걸, 뭘 이게 밥이다 밥이 아니다 할 게 뭐 있어? 아, 밥 한 그릇 해다 놨으면 그냥 주워 먹을 거지, 허허, 아니 그게 아니다 기다 할 게 뭐 있느냐.' 하고 그 생각이 퍼뜩 떠오르면서 '옳지, 내가 배고프면 먹고 똥 마려우면 똥 누고 자고 싶으면 자는 거지. 그게 법이지. 무슨 그 나발 같은 소리는 다 필요 없는 거지.' 하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든 이 생활의 참선, 또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이 한 생각 뛰어넘을 수 있다면 미지의 세계의 활용과 지금 현실의 세계의 활용이 둘이 아니라는 그 점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 맛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이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어. 그런데 뭐, 보석이 수만큼 걸려 있어도, 많다 하더라도 그까짓 거 눈에 차지도 않아. 아이, 땅속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만데. 물속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고. 모두가 다,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쯤 해 놓고요. (중략)

난 어저께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어저께요, 난 이름도 몰라요, 운동 이름, 그거. 근데 뚱그렇게 해 놓곤 살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 둘이서 하나는 빨간 걸 입고 하나는 파란 걸 입고 하는데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글쎄, 그 사람을 넘기려다 들리지는 않고, 하하하…. 그러니까 글쎄, 그 큰 몸이 그걸 넘기려다 그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아유, 얼마나 내가 혼자 앉아서 웃었는지 말입니다.

웃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들어가는 순간,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너도 참 둔하기도 하다, 둔하기도 해. 몸뚱이도 둔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럭하고선 '얘, 어차피 나왔으니….' 지금 암에 죽는 것도 자기가 그 암 속에 그냥 푹 파묻혀서 죽는 거거든. 이게 그 짝이라. 아무 데 갖다 붙여도 돼요. 또 그건 그렇게 두고요, '그러면 네 힘하고 빨간 거 힘하고, 너 파란 거에다 한데 합쳐서 그냥, 어차피 하던 거 그냥 해라.' 하하하…. '아니, 하나가 돼야 끝이 나지 이건 그냥…. 그럼 어떡하니? 이왕지사 뭐, 아주 싸우는 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랬더니만 아, 어떻게 번쩍 들더니만 둘이 그냥 막 뒹굴래길쳐요. 그러더니 이겼대요. 아니 세상에, 그런 운동도 다 있어요. 세상에, 아무거나 붙여 놓고도 운동이래요. 허허, 아니, 그뿐인가요? 요만한 막대기 가지고, 요만한 거 쪼그만 걸 가지고 그걸 치고 다녀. 하하하…. 얼마나 웃깁니까, 글쎄.

아이, 모두 운동도 운동이지만요, 또 한 가지 말하자면, 내가 또 울었습니다. 왜? 이 조선의 역사를 볼 때에 얼마나 중국의 탄압을 받았고 일본의 탄압을 받아 왔던가? 우리가 개척한 지가 뭐 얼마나 됐던가? 그래, 너희들은 좀 쉬어. 하하하…. 너희들은 그렇게 자리 잡고 오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고 우린 지금 사십몇 년밖엔 안 돼. 하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깃발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마 그전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나 보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그 역사가, 얼마나 피를 흘렸고 얼마나 아팠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왕지사 이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니 나는 앉아서라도,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꼭 불국토를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이 세상을 전부 그냥 요렇게 조화롭게 해서 말입니다. 스키야키, 아니지, 전골 있지 않습니까? 전골! 전골을 해야죠? 그래야 맛이 나지, 전골을 해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장차 아, 우리가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전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능력을 기릅시다. 전골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산천초목 천지만물 중에 모두가
만 가지 꽃이 되며 만 가지 향이 되며 만 가지 법이 되니
어찌 부처님 아닌 게 있으랴!

※위 법문은 1986년 9월 27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